

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

- 진재(震災)·원전(原電)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 -

조미경**
cho9631cho@naver.com

<目次>

- | | |
|---|------------------------------|
| 1. 서론 | 4.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대응 |
| 2.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의 간행과 3.11 이후 진재·원전문학의 성립 | 5. 결론 |
| 3. 자연재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대응 | |

主語語: 3.11 동일본대지진(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그래도 3월은, 다시(March was made of yarn), 진재문학(Disaster literature), 원전문학(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일본현대문학자(Japan's Contemporary Literary Writers)

1. 서론

일본근현대문학에서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시대의 문학을 ‘근대문학’, 쇼와(昭和) 이후의 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지칭하는 일반적 구분법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도 ‘3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하나는 “『씨뿌리는 사람(種蒔く人)』이 창간된” “1921년(다이쇼10)전후”의 시기, 두 번째는 “『문예전선(文芸戦線)』과 『문예시대(文芸時代)』가 창간된 1924년(다이쇼13)년”으로 보려는 시각, 세 번째는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자살하고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압도적 융성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013)

**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과 기성작가의 침묵이 시작된 1927년(쇼와 2)”부터 보려는 시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학을 굳이 “양분하려고 한다면 1924년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고 해도 좋”¹⁾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924년 현대문학 출발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1923년의 간토대지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동대지진 이후 “신감각파”가 일어나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어 “1924년부터 25년에 걸쳐 상황은 완전히 일변하게 되었다”²⁾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일본근현대문학만을 착목해 보더라도 대지진과 이에 수반한 거대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문학적 전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3.11 동일본대지진’은 당시 전후 이후 최대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관동대지진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충격을 주었다.³⁾ 특히 거대지진과 쓰나미(津波)라는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 현재진행형 사건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강도는 그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지진이 있었던 3월 당시부터 이미 일본 현대문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작품화하거나 ‘부흥서점 Revival & Survival’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모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론이나 비평 등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직접적으로 탈원전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2011년에 일본현대문학계에서는 ‘진재문학’, ‘원전문학’이라는 비평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문학자들은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하여 ‘진재문학’, ‘원전문학’은 아직 현재 진행형의 문학장르이며 2011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문학들이 계속 창작되고 있다. 이들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표적인 원전소설이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원전(恋する原発)』에서 ‘진재(震災)문학론’⁵⁾을 전개한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 『신 2011(神様2011)』과

1) 磯貝英夫(1977)「近代から現代へ」『近代文学5』有斐閣, pp.4-5

한편 “신감각파는 때때로 진재(震災)문학이라고 일컬어지며, (중략) 진재를 계기로 하여 급속하게 만들어진 도시문명의 부산물”(磯貝英夫(1990)「新感覚派の登場」『大正の文学』有斐閣, p.256)이라는 의견도 이에 해당한다.

2) 小田切進(1965)『昭和文学の成立』勁草書房, p.46

3) 예를 들면 “이번 동일본대진재와 같이 14도현이나 되는 넓은 범위에서 지진 5강 이상을 관측하고, 6현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이었다. 10만 5,000명의 희생자를 낸 1923년의 간토 대진재에서 진도 5강도 이상을 관측한 범위가 7도현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번 진재의 규모는 현저하며, 그것이 광역적 경제피해를 가져왔다.”(다케나가 헤이조후나바시 요이치 편저, 김영근 옮김(2012)『일본 대재해의 교훈』, 도서출판 문, p.47)는 의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정병호(2012)「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의 논의와 전개」『저팬리뷰 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도서출판 문, pp.308-327 참고

5) 高橋源一郎(2011.11)『恋する原発』講談社, p.199

『사랑하는 원전』 등 초기 진재 및 원전 소설을 분석한 사이토 다마키(斎藤環)⁶⁾의 평론을 비롯하여 다수의 잡지 등에서 비평 및 평론이 쏟아졌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2011 동일본 대지진과 더불어 진재 및 원전문학의 성립과정과 전망을 제시한 「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의 논의와 전개」라는 글과 더불어 최가형의 일련의 논문⁷⁾, 일본대학 교수가 국내 학회지에 발표한 곤도 겐시(近藤健史)의 논문⁸⁾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 논문과 평론들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이에 대해 어떠한 문학적 반응이 있었는지를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조망한 다수의 작품들에 대한 전체적 조망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자연재해와 원전사고를 조망한 17명의 작가와 시인에 의한 ‘진재’, ‘원전’ 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해 일본 현대문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 재난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개별 작품을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및 원전 문제와 일본현대문학의 관련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2011년도에 비평용어로 성립한 ‘진재(震災)문학’, ‘원전(原発)문학’의 고찰을 통해 현실사회에 대한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도록 한다.

2.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의 간행과 3.11 이후 진재·원전문학의 성립

『그래도 3월은, 다시』는 이른바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를 총체적으로 다룬 작품으로서 이 작품에서는 거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된 현장들, 그리고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피난소의 모습, 나아가 원전 사고가

6) 斎藤環(2012)「"フクシマ"、あるいは被災した時間(第五回)-換喩化のドライブ・2」『新潮』第109巻 第2号, pp.247-249

7) 최가형(2013)「3.11 동일본대지진(3.11 東日本大震災) 이후 일본진재문학(震災文学)에서의 교토(京都) 표상」『일어일문학』제5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65-377

최가형「3.11 동일본대지진과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가미사마 2011(神様2011)』」『일본학보』제98집, 한국일본학회, pp.301-314

8) 近藤健史(2014)「3.11と宮澤賢治とやなせたかし—「雨ニモマケズ」と「アンパンマンのマーチ」」『일어일문학』제61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9-333

남긴 다양한 제상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일본재단(日本財団)의 ‘Read Jap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동시에 간행된 작품집인데, 다니카와 순타로(谷川俊太郎),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 시게마쓰 기요시(重松清), 오가와 요코(小川洋子),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 이시이 신지(いしいしんじ), J.D. 맥클라치(McClatchy), 이케자와 나쓰키(池澤夏樹), 가쿠타 미쓰요(角田光代),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 아키카와 데쓰야(明川哲也), 배리 유어그라우(Barry Yourgrau), 사에키 가즈미(佐伯一麦), 아베 가즈시게(阿部重), 무라카미 류(村上龍), 데이비드 피스(David Peace) 등 17명의 일본 및 영미 소설가, 시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일본에서는 고단샤(講談社)에서 2012년 2월 24일 제1쇄가 간행되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March was made of yarn : reflections on the Japanese earthquake, tsunami, and nuclear meltdown*⁹⁾ 라는 타이틀로 동시에 간행되었다. 이들 작품 중 다니카와 순타로의 「말(言葉)」¹⁰⁾, 다와다 요코의 「주문(おまじない)」¹¹⁾ 등 7개 작품은 이미 2011년 신문이나 문학잡지 등에 발표된 작품들이고,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不死の島)」 등 10개 작품은 이 작품집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작품은 단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만을 제재로 취한 작품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만을 테마로 한 경우도 있으며 이 두 가지 사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작품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은 3.11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를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여 그 실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진재·원전문학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재단에서 프로젝트로 기획한 작품집이라 하더라도 3.11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3개국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17명이나 되는 작가의 작품집이 동시에 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미 3.11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내포하는 충격과 상처만큼이나 그 사이에 이들 사건을 둘러싼 문학적 대응과 비평, 그리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정병호의 논문에서는 3.11 이후 2011년에 나온 동일본대지진 관련 주요 문학 작품 12개와 문학잡지와 평론집의 관련 비평 12개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2011년에 나온 ‘지진’과 ‘원전’을 소재로 한 작품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위의 작품 외에도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문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진, 쓰나미, 원전에 대한 각각의 비통한 감회가 여기저기서 실제로 보게 되었다”¹²⁾면서 시무라 구니히로(志村有弘)가 『COALSACK』

9) Elmer Luke과 David Karashima의 편집으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2012년 3월 Vintage Books에 동시 간행되었다.

10) 『朝日新聞』, 2011.5.2 석간

11) 『別冊文芸春秋』295号, 2011.9에 실린 「다시 다음 봄에—주문(また次の春へ—おまじない)」을 개명하여 게재.

제69호(2011.4)의 특집 ‘원전진재(原発震災)’에 소개된 18명의 시와 에세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만을 보아도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즉각적이고 폭넓은 반응을 보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잡지뿐만 아니라 당시 문예관련 잡지에서는 수많은 동일본대지진 관련 작품을 싣고 있다. 예를 들면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의 「일본문학성쇠사 전후문학편(日本文学盛衰史 戦後文学篇) 17/18/19」(『群像』, 2011.5-6-7), 후루이 요시키치(古井由吉)의 「아이들의 행방(子供の行方)」(『群像』, 2011.8), 구로카와 소(黒川創)의 「파도(波)」(『新潮』, 2011.11), 시라이와 겐(白岩玄)의 「끝나지 않은 밤에 꿈을 꾀다(終わらない夜に夢を見る)」(『文藝』, 2011. 겨울호), 아마시타 스미토(山下澄人)의 「물소리밖에 나지 않는다(水の音しかしない)」(『文學界』, 2001.12), 세이라이 유이치(青来有一)의 「인간의 소행(人間のしわざ)」(『すばる』, 2012.1),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의 「두번째의 여름에 이른다(二度めの夏に至る)」· 사토 유야(佐藤友哉)의 「지금까지 대로(今まで通り)」(이상, 『新潮』, 2012.2), 무라타 기요코(村田喜代子)의 「원자해안(原子海岸)」(『文學界』, 2012.2)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렇게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진재’나 ‘원전’ 문제 등을 취급하는 작품이 쏟아지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이는 앞에서 본 『사랑하는 원전』과 같이 이른바 ‘진재문학론’을 통해 당시의 자연재해 및 원전사고와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현실사회의 거대사건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개입이 그 만큼 많은 비평가와 작가들 사이에 담론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진이 안정되고 쓰나미가 물러가도 원전사고에 의한 오염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략) 우리들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혹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쓴 제자료를 모아 <천재(天災)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후대에 남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전하고 싶다”¹³⁾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천재’를 작품화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문학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재’, ‘원전’문학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히요리아마(日和山)」와 「RIDE ON TIME」이라는 작품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명하고 있다.

물론, 3.11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며 도쿄전력은 더욱 믿을 수 없다. 전문가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대형 미디어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속에서 방사능 문제와 대처하면 안 된다.”¹⁴⁾며 3.11 이후 현실 문제를 문학적으로 응시하고 문학의 가능성을 탐색하려고 한 평론도 현실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학화하여 ‘진

12) 志村有弘(2011)「震災と浮説と人心」『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 p.56

13) 志村有弘編(2011)「はじめに」『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 pp.3-4

14) 中島武志『世界が決壊するまえに言葉を紡ぐ』(金曜日, 2011.12), p.196

재’ 및 ‘원전’ 문학을 적극적으로 창작하게 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 ばなな)가 ‘진재’ 관련 소설을 간행하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다.

이 소설은 이번 대지진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한 사람, 살아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모두에게 향해 쓴 것입니다. (중략) ‘장난치지마, 이런 알뜰한, 쾌활한 투의 소설로 무엇을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해 주기 바라는 듯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소설로 웬지 구원받는다, 웬지 괜찮아 진다, 그런 적은 독자를 향해 작고 건실하게 쓰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¹⁵⁾

이 문장은 『스위트 히어애프터(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의 후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에서 요시모토 바나나는 실제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앞에 두고 소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성은 의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의 소설 창작을 통해 문학이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감, 나아가 구원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래도 3월은, 다시』는 ‘일본재단’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여진 ‘진재’ 및 ‘원전’ 문학집이지만,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1년 동안 문학자들 사이에 이러한 재난에 대해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상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간행된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3. 자연재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대응

미국, 영국, 일본에서 동시 간행된 『그래도 3월은, 다시』 중에서 사에키 가즈미(佐伯一麦)의 「히요리야마(日和山)」는 전기공과 작가를 겸하다 건강을 잃고 수도권 지역에서 동북지방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가 3.11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피난소의 모습과 지인인 벳푸(別府)와 더불어 쓰나미로 자취가 사라진 벳푸의 집근처와 ‘히요리야마’를 둘러보는 소설이다. 그런데 ‘히요리야마’를 둘러보는 장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15) よしもとばなな(2011)『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幻冬舎, pp.156-157

그것은 산 뒤쪽에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진소(震嘯)기념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조심

1933년 3월 3일 오전 2시 30분 갑자기 강진이 있었다. 진정후 약 40분이 지나 이상한 음향과 더불어 노도(怒濤) 澎湃해 와 높이 10척이 나토리가와(名取川)강을 거슬러 올라.....>

2.5미터 정도의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는 비문을 나와 벧푸는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다.

“분명히 적혀 있었군요. 사상자가 없어도 이런 비석까지 세워”¹⁶⁾

이 문장은 3.11 때 쓰나미에 소실된, 일본에서 가장 낮은 산이라 일컬어지는 센다이(仙台)시의 히요리아마라고 추측되는 이 산에 있었던 ‘쓰나미의 계석(戒石)’에 쓰여 있는 글을 읽으며 벧푸가 내뱉은 말이다. 특히 1933년 쇼와 산리쿠(三陸)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적은 “쓰나미의 계석”을 보면서 벧푸가 “분하듯” 내뱉은 말의 내용을 보면 이 문장은 분명히 당시의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는 분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무라 구니히로가 진재와 관련된 “제자료를 모아 <천재(天災)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작어도 후대에 남는 자료”를 전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과거의 상처가 남긴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현재와, 그러나 후대를 위해 현재의 교훈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는 문학의 역할 제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¹⁷⁾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자연재해로서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하고 작가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문학적 대응을 하였던 것일까? 『그래도 3월은, 다시』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이에 대한 관점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의미가 어딘가에 떠오르면 그것도 돌파구를 비틀어 열 수 있는, 힘의 일부로 틀림 없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느 때와 완전히 다른 금요일을, 여느 때와 같은 금요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믿고 나는 지금부터 저 파도를 타 볼 작정이다.¹⁸⁾

② 여기에서 살아가 불까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아간다. (중략) 어쨌든 압도적으

16) 佐伯一麦(2012)『日和山』『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32. 이하 이 작품집으로부터 인용은 작품집과 출판사 생략.

17) 스치 도쿠헤이(須知徳平)는 「소설 산리쿠쓰나미(小説三陸津波)」이 들어 있는 소설집 『봄에 오는 도깨비(春来る鬼)』(毎日新聞社, 1963)의 후기에서 ‘당시(쇼와 산리쿠대지진.인용자 주)의 기억은 언제까지나 생생하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산리쿠 쓰나미의 참상을 다소나마 알아준다면 이라고 생각한다(志村有弘編『大震災の記録と文学』, p.249)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위 소설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라 볼 수 있다.

18) 阿部和重『RIDE ON TIME』, p.244

로 인재가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구인지 부흥인지 재건인지를 보고 간다. 앞으로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¹⁹⁾

- ③ 희망이란 (중략) 그 존재와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해야 할 것을 발견해 목표를 설정해, 정보와 지식, 게다가 필요하면 자금을 얻어 실행으로 옮겨 준다. (중략) 희망의 짙은 개별로 그리고 확실하게 탄생하고 있다.²⁰⁾

①은 아베 가즈시게(阿部和重)의 「RIDE ON TIME」이라는 소설로서 3.11의 거대 쓰나미를, 서핑을 하기 위해 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비유한 소설인데, 여기서는 10년전 서핑 라이딩의 대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역사의 축적이 지해를 낳고 돌파구를 서서히 밀어 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본 대로 과연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 새로운 재난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소설은 새로운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도전의식을 드러내며 재난 극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는 이케자와 나쓰키(池澤夏樹)의 「아름다운 조모의 성서(美しい祖母の聖書)」라는 소설인데, 여기서는 50살 된 주인공이 2년전 연인이 생긴 아내와 헤어지고, 운영하던 회사도 부사장의 책략으로 빼앗기고 나서 남은 인생은 미국에 건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획이었다. 그래서 도미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던 할머니의 ‘성서’와 할아버지의 ‘안경’을 피해지역인 동북지역에 사는 형수에게 3월 11일 오후 2-4시 도착이라는 시간지정으로 택배를 보냈고 형의 가족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미국에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도쿄에서 다시 이곳 고향으로 돌아와 복구와 부흥에 역할과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택을 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그러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한 소설이다.

한편, ③은 무라카미 류(村上龍)의 「유칼리의 작은 잎(ユーカリの小さな葉)」이라는 소설인데, 여기서는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희망’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받은 후쿠시마현 소마(相馬)시” 시장은 “복구·부흥 아이디어”(p.258)를 소개하면서 개별적으로 “희망의 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도시와 마을들은 파괴되어 잡기들만 쌓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피난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속에서 미래의 ‘재건’과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고 ‘희망’의 감성을 짙어져 가는 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3월은, 다시』에서 거대 자연재해에 대해 새로운 ‘희망’과 ‘재건’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19) 池澤夏樹「美しい祖母の聖書」, p.154

20) 村上龍「ユーカリの小さな葉」, pp.258-259

항상 수반하는 인식은 3.11 동일본대지진과 그 이후의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평가의 눈이다.

- ① 3.11로부터 반년이 경과하려고 하고 있다.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중략)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이 소집·자문한 ‘동일본대지진부흥구상회의’의 제언서 타이틀은 ‘비참함 속의 희망’이었다. 3.11후의 일본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범람했다. 그렇지만 보다 좋은 미래가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일본에 충만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²¹⁾
- ② 시가지의 도처에 대지진이 할퀴 자국이 아작·아작 남아 있어서 놀랐다. 동북지방에서 최대급의 서점이 있었던 아케이드 거리가 예사의 풍속거리로 변모하고 있어서 놀랐다. 여기저기에 ‘힘내라 후쿠시마’, ‘포기하지 말자 후쿠시마’라고 벽보가 있고, 비에 젖은 시계(視界)가 깜빡깜빡 흔들렸다.²²⁾

①은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한 무라카미 류의 소설인데, 이 구절에서는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3.11이 일어나고 반년이 지났지만 실제 정치가가 제시하는 ‘희망’이란 확실한 것도 아니며 곧바로 “좋은 미래가 방문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온 일본에 ‘희망’이라는 말이 ‘범람’하고만 있지 3.11에 대처하는 “정부는 믿을 수 없다”(p.256)라던가 “행정이 하는 것”²³⁾이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현실정치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개별’의 ‘희망’을 언급하고 있었던 셈이다.

②는 후쿠시마현 출신 작가로 3.11후 곧바로 후쿠시마를 무대로 한 한 소설 『말들이여, 그래도 빛은 무구하고(馬たちよ、それでも光は無垢で)』(新潮社, 2011.7)를 간행한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결혼 16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에서 다시 지내기 위해 후쿠시마현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주요한 스토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저기에 ‘힘내라 후쿠시마’, ‘포기하지 말자 후쿠시마’라고 벽보가 있”지만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슬로건으로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정치나 행정뿐만 아니라 일본에 내재된 문화나 관습에도 미치고 있는데, 실제 ‘원전’ 사고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이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한편, 대지진을 그린 소설 중에서 흥미로운 점은 영국소설가 데이비드 피스(David Peace)가 쓴 「참사의 뒤, 참사의 전(惨事のあと、惨事のまえ)」이라는 소설이 제시하는 소재의 특이성이다. 이 소설은 1923년 간토(関東)대지진을 소재로 하여 당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

21) 위의 작품, pp.256-257

22) 古川日出男「十六年後に泊まる」, p.187-188

23) 池澤夏樹「美しい祖母の聖書」, p.141

介)가 겪은 지진 경험과 그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안부를 염려하여 그를 찾아나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아쿠타가와는 공적인 기록을 믿지 않았다. 아쿠타가와는 이 지진이 수습되는 일 따위는 없다고 믿고 있었다. 참사는 이제부터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²⁴⁾라는 구절로 마치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참사는 소설 내 내용으로 본다면 당시 조선인 학살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 대지진 이후 “폭동과 습격”, “방화와 약탈”, “살인과 강간”(p.267) 등의 소문이 횡행하고 “자경단”이 곧바로 구성되어 “피도 정신도 일본인이 아니라 악역(惡逆)의 패거리”(p.268)라며 이 중 그 표적을 삼았던 것이 조선인이었다. 아쿠타가와는 가와바타를 만나고 오는 길에 이러한 일본인에 의해 학살당한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그러한 행동의 증거를 눈으로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순사의 말을 듣고 아쿠타가와 참사 뒤의 더 커질 수 있는 불길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사를 역사적 사실로서 좀 더 넓게 본다면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이토 노에(伊藤野枝),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沢計七) 등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조선인 다수가 이유 없이 살해”²⁵⁾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25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이 공포되는 역사적 경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소설은 분명히 애국심 호소라던가 국민의 단결이라던가 하는 3.11 이후 일본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포함된 소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3.11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면 이상과 같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여 교훈으로서 전한다는 문자매체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매체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3월은, 다시』에 나타난 작품들을 보는 한 이는 단순한 희망의 구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거대 재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본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비판과 대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대응

이와 같이 단순한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동일본대지진과 거대 쓰나미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는 파괴된 일상 속에 ‘희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연재해의 결과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24) David Peace 「慘事のあと、慘事のまえ」, p.273

25) 磯貝英夫 「新感覚派の登場」, p.255

어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래도 3월은, 다시』중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직접적인 모티브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은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불사의 섬(不死の島)」과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신 2011(神様2011)」이다. 전자는 일본의 원전사고가 일본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버려지고 일본정부도 민영화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다분히 SF적인 요소를 품고 있는 소설이다. 후자는 1993년에 쓴 동명의 소설을 개작하여 3.11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일상을 그린 소설이다.

「신 2011(神様2011)」은 3.11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빠르게도 2011년 6월호에 『군상(群像)』에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에 고단샤(講談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원래 작가 본인이 말하고 있듯이 “고래 많은 신들이 있었”²⁶⁾던 감각을 살려 “곰의 신”과의 하루 동안의 피크닉을 그린 매우 동화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이다. 물론 「신 2011」의 경우도 이러한 스토리 라인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는 세계는 ‘토양’을 ‘제염’하는 모습, “방호복에 방진 마스크, 허리까지 장화를”(p.65)신고 “피폭허용량”을 늘 체크해야 하는 낯선 일상의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된 일상의 모습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방에 돌아와(중략) 샤워를 하여 조심스럽게 몸과 머리를 씻어내고 자기 전에 조금 일기를 쓰고 마지막으로 여는 때와 같이 총피폭선량을 계산했다. 오늘의 추정 외부피폭선량30μSv, 내부피폭선량19μSv, 연초에서 오늘까지의 추정누적 외부피폭선량2900μSv, 추정누적 내부피폭선량1780μSv. 곰의 신이란 어떠한 것일까? 상상해 보았지만 짐작이 가지 않았다.²⁷⁾

이들 문장은 “방에 돌아와(중략) 목욕을 하고 자기 전에 잠시 일기를 썼다. 곰의 신이란 어떠한 것일까, 상상해 보았지만 짐작이 가지 않았다.”(p.62)는 1993년 작품과 비교하더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과 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풍경과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가 가와카미 히로미는 고단샤에서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쓴 ‘후기’에서 이 소설의 창작 의도에 대해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경고한다, 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일상은 계속 이어져 간다, 그렇지만 그 일상은 무언가로 커다랗게 변화해 버릴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커다란 놀라움의 기분을 담아 썼습니다. 조용한 분노가 저 원전사고 이래 떠나지 않습니다.

26) 川上弘美(2011)「あとがき」『神様2011』講談社, p.39

27) 川上弘美「神様2011」, pp.72-73

오히려 이 분노는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오는 분노입니다.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川上弘美「あとがき」, p.44)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작가의 태도는 원전사고로 변해 버린 일상에 대한 놀라움의 기분,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온 자기 자신을 포함한, 현대문명 그 일체에 대한 분노에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원자력 이용”에 대한 “위협성”이 작품 창작의 첫 번째 계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는 상당히 간접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고 “우라늄의 신이 있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으면서 원폭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 온 현대인에 대한 강한 분노와 반발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와카미 히로미의 태도는 3.11 이후 대표적인 원전소설이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원전』의 창작 의도와 상당히 다르면서도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원전』에서는 당시 언론매체를 휩쓸고 있었던 “힘내라, 일본. 일본은 하나. 우리들도 일본인이다.”라는 식의 애국심 자극이나 단합의식을 “강압하는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야유하고 비꼬는 의미에서 성인용 비디오 (AV)를 만들어 “피해자 모두에게 기부”²⁸⁾한다는 내용의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정치가나 관료, 언론매체들에 대해 강한 불신과 더불어 비판을 가하게 된다.

실제, ‘진재’, ‘원전’ 문학집인 『그래도 3월은, 다시』중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명비판이나 실제 사건을 은폐하며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단지 애국심이나 단결, 그리고 배려만을 유포하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① “안심하십시오. 만사 괜찮습니다. 걱정은 필요없습니다.”라고 부서진 자동판매기에서, 육체로부터 이탈한 목소리가 보충한다.

시인의 유령과 가짜 야쿠자는 “거짓말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듯 취한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욕설을 하고 흐느껴 운다.²⁹⁾

- ② 정치가들, 대답해 주었으면 한다. / 저 동력이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 있을 거라고 / 생각한 것은 왜인지? (중략)

원자로는 아직 거기에 서 있다. / 따뜻하게 하는 것, 죽일 수 있는 것이 아직 있다고 하는 건가?³⁰⁾

28) 高橋源一郎(2011)『恋する原発』講談社, pp.16-17

29) Barry Yourgrau, 著柴田元幸 訳「漁師の小舟で見た夢」, p.205

30) J.D. McClatchy, ジェフリー・アングルス 訳「一年後」, p.133

- ③ 방에 돌아와 결국, 곧바로 아내와 교대로 샤워를 했다. 물론 비에 젖으면 피폭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략) “방사능 도시에 환영합니다. (중략)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廢爐)에는 수십년에서 100년 걸린다, 고 그 논문은 지적하였다.³¹⁾

①은 남아프리카 출신 미국소설가인 배리 유어그라우의 「어부의 작은 배에서 낚는 꿈(漁師の小舟で見た夢)」이라는 소설인데, 위의 인용문은 “흰 의복으로 몸을 감싼” “위험구역의 작업원”들이 “오염된 증기가 피어오르”(p.204)는 곳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오는 구절이다. 사실 원전사고 이후 위에서 말한 “안심” “괜찮다”, “걱정은 필요없다”는 말은 당시 정부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반복된 메시지였으며, 이 소설은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며 간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J.D. 맥클라치(McClatchy)가 쓴 ②의 시는 원전사고와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정치가를 향해 쏟아내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의 소설 ③은 「신 2011」처럼 후쿠시마 시내에서 비를 맞아 방사능 오염을 염려하여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는 장면은 3.11 이후 이 지역의 변화된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택시기사가 도쿄(東京)에서 온 주인공 부부에 대해 “방사능 도시에 환영” 한다는 문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완전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때에 “우리들은 아무도 없다.”(p.189)는 구절은 원전사고가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장래에도 지속되는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앞에서 언급한 “힘내라 후쿠시마”, “포기하지 말자 후쿠시마”라는 말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역시 당시 정치가와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원전사고의 현장인 후쿠시마에 대한 동정이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학집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와다 요코의 「불사의 섬(不死の島)」은 원전 사고 후의 일본의 미래보수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일본”은 “2011년에는 동정 받았지만 2017년 이후는 차별 받게³²⁾되어 전 세계로부터 소외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더욱 심각해져 다시 대지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원전사고가 표면화하여 2015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정보가 끊어지고” “일본행의 비행기도 사라져 버렸다”(p.13)으며 같은 해 “일본정부는 민영화”되어 버리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 “젊은 사람순으로 모습이 사라지고”(p.20) 노인은 “죽는 능력을 방사성물질에 의해 빼앗겨 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일종의 SF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 문제를 제대로

31) 古川日出男「十六年後に泊まる」, p.188

32) 多和田葉子「不死の島」, pp.12-13

처리하지 못하고 잇따른 지진에 의해 일본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려 원전 그 자체에 대한 문명론적 비평을 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에서도 미증유의 대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작가들은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를 낳은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를 은폐하고 분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오로지 애국심이나 국민적 단합에만 호소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전’ 문학은 적어도 현실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학의 적극적 비판과 개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문명이 낳은 원전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2001년에 일어난 3.11 동일본대지진이 과거의 거대지진과 차이가 나는 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한 트러블”로 인해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강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 중국, 러시아 등도 공유”³³⁾하고 있다는 소설 내 문장이 나타내듯이 방사능 누출사고가 가지는 위험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이 더 이상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되. 그리고 이 세계가 정말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구할 방법이 없는 장소라는 식으로 생각”³⁴⁾된다며 3.11과 불안 자체를 테마로 한 가와카미 미에코의 소설도 진재와 불안이라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3.11 이후 불안 속에 노정된 현실사회를 마주하면서 일본 근현대문학은 ‘진재’·‘원전’ 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일본현대문학계에서 이러한 ‘진재’·‘원전’ 문학이 크게 움직이는 데에는 비참한 현실 사건을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들 문제를 문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 문학을 통해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감, 나아가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작품도 당연히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여 교훈으로서 전한다는 문학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33) 村上龍「ユーカリの小さな葉」, p.254

34) 川上未映子「三月の毛糸」, p.96

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재’·‘원전’ 작품을 창작한 문학자들은 이러한 ‘희망’의 발견과 ‘위안’을 제시하면서도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원자력발전소를 낳은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오로지 애국심이나 국민적 단합에만 호소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였다. 사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문학자들은 단지 이와 관련한 문학작품의 창작에만 그치지 않았다. 문학자들은 3.11 이후 곧바로 ‘부흥서점’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거나 평론이나 비평 등으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탈원전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대지진과 쓰나미의 상흔, 그리고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재’·‘원전’ 문학은 사회문제와 현실 정치에 대해 문학자들이 적극적 개입하고 사회적 역할을 담지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参考文献】

- 阿部和重(2012)『RIDE ON TIME』『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44
 池澤夏樹(2012)『美しい祖母の聖書』『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14, p.154
 磯貝英夫(1990)『新感覚派の登場』『大正の文学』有斐閣, p.256
 磯貝英夫(1977)『近代から現代へ』『近代文学5』有斐閣, pp.4-5
 小田切進(1965)『昭和文学の成立』勁草書房, p.46
 川上弘美(2011)『あとがき』『神様2011』講談社, p.39
 川上弘美(2012)『神様2011』『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p.72-73
 川上未映子(2012)『三月の毛糸』『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96
 近藤健史(2014)『3.11と宮澤賢治とやなせたかし—「雨ニモマケズ」と「アンパンマンのマーチ」』『일어일문학』 제61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9-333
 斎藤環(2012)『“フクシマ”、あるいは被災した時間(第五回)-換喩化のドライブ・2』『新潮』第109巻 第2号, pp.247-249
 佐伯一麦(2012)『日和山』『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32
 志村有弘編(2011)『はじめに』『大震災の記録と文学』勉誠出版, pp.3-4, p.56, p.249
 高橋源一郎(2011)『恋する原発』講談社, pp.16-17, p.199
 多和田葉子(2012)『不死の島』『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p.12-13
 中島武志(2011)『世界が決壊するまえに言葉を紡ぐ』金曜日, p.196
 古川日出男(2012)『十六年後に泊まる』『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187-188
 村上龍(2012)『ユーカリの小さな葉』『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54, pp.258-259
 よしもとぼなな(2011)『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幻冬舎, pp.156-157
 Barry Yourgrau(2012)『漁師の小舟で見た夢』『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05
 David Peace(2012)『惨事のあと、惨事のまえ』『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273
 J.D. McClatchy(2012)『一年後』『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133
 다케나가 헤이조후나바시 요이치 편저, 김영근 옮김(2012)『일본 대재해의 교훈』도서출판 문, p.47

- 정병호(2012)「3.11 동일본대지진을 둘러싼 2011년 <진재(震災)/원전(原發)문학>의 논의와 전개」『저팬리뷰 2012 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도서출판 문, pp.308-327
- 최가형(2013)「3.11 동일본대지진(3.11 東日本大震災) 이후 일본진재문학(震災文学)에서의 교토(京都) 표상」『일어일문학』제5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65-377
- _____(2014)「3.11 동일본대지진과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가미사마 2011(神様2011)』」『일본학보』제 98집, 한국일본학회, pp.301-314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

- 진재(震災)·원전(原電)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자연재해와 원전사고를 조망한 ‘진재’, ‘원전’ 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대상으로 하여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해 일본 현대문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인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및 원전 문제와 일본현대문학의 관련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2011년도에 비평용어로 성립한 ‘진재(震災)문학’, ‘원전(原電)문학’의 고찰을 통해 현실사회에 대한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였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일본현대문학계에서 이러한 ‘진재’·‘원전’ 문학이 크게 움직이는 데에는 비참한 현실 사건을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들 문제를 문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 문학을 통해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도감, 나아가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작품도 당연히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여 교훈으로서 전한다는 문학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재’·‘원전’ 작품을 창작한 문학자들은 이러한 ‘희망’의 발견과 ‘위안’을 제시하면서도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원자력발전소를 낳은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오로지 애국심이나 국민적 단합에만 호소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대해 엄중하게 비판하였다.

Modern Japanese Writer's Correspondence and Recognition on the East Japanese Earthquake and Accident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2011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March was made of yarn* which depict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o I comprehensively analyzed recognition and response of modern Japanese literary writers about the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work,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author of a literary work recognized that it must be informed later by recording their current miserable situation. Second, the modern Japanese literary writers have sought to provide hope and comfort through these works.

Third, the modern Japanese literary writers severely criticized for the government's limit o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modern civilization engendering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social atmosphere only to appeal to patriotism and national unity.